

일. 정복에 나서기 전에 예배드림:

❖ 언약을 갱신함 (수 5:1-9)

- 이집트를 떠난 지 40 년이 넘었지만,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그들의 발이 가나안 국경을 밟았습니다. “이집트에서의 치욕”을 지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(수 5:9).
-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.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(출 12:48). 그들의 부모세대가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(하나님과의) 언약은 깨졌고, 되돌아간 광야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(수 5:5).
- 깨어진 언약을 새로 회복하려면 그 언약을 상징하던 의식을 다시 거행해야 했습니다(창 17:10). 그리고 이 의식은 삶의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. 우리도 이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. “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” (마 6:33).

❖ 가나안에서 맞은 첫 유월절 (수 5:10-12)

-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을 정복까지의 사건들을 열거해보면 그 순서가 반복되며 역순으로 서로 대칭이 되는 것(Chiastic pattern)을 볼 수 있습니다. **이집트 → 할례를 거행하고 유월절을 지킴 → 홍해를 건넌 → 광야 → 요단 강을 건넌 → 할례를 거행하고 유월절을 지킴 → 가나안**.
-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상징했고, 새로운 세대가 기념한 두 번째 유월절은 언약의 땅 정복을 상징했습니다.
-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유월절 의식에 새로운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셨습니다. 빵은 어린양을, 그리고 포도즙은 그 피를 상징했습니다.
- 그리고 우리에게 유월절은 애굽, 즉 각자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 우리 구속주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(고전 11:23-26).

이. 산들 가운데서 예배드림:

❖ 예배를 위한 제단 (수 8:30-31)

-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 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(신 27:5-7). 그런데 왜 그리심 산이 아니라 에발 산에 제단을 쌓았을까요?
- 그 곳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제단과 기념비에 기록된 율법은 모두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(신 27:12-13). 축복은 그리심 산에, 저주는 에발 산에 선포되었습니다.
-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는 저주 대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(갈 3:13-14). 이 제단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.
- 가나안 정복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은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도 그들의 모범을 따라,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다시 헌신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.

❖ 율법을 기억함 (수 8:32-35)

- 여호수아는 에발 산에 제단을 쌓은 후,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랐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, 규례, 그리고 축복과 저주들을 세겨 놓았습니다(수 8:32; 신 27:2-3).
-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반으로 나뉘어 각각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섰고 율법이 그들에게 낭독되었습니다(수 8:33-35).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이 새롭게 되었습니다.
- 이 행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.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우리는 그분과의 언약을 갱신하며,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주기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.
-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새롭게 될 뿐 아니라,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같이 특별히 새롭게 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.

삼. 예배를 위한 특별한 장소:

❖ 성소를 지음 (수 18:1)

-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. 그 영토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들에게 분배되었지만, 나머지 일곱 지파는 아직 자신들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. 르우벤, 갓,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은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.
- 각 지파가 분배 받은 땅으로 흩어지기 전에 특별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. 즉,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(수 18:1).
- 모두가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는 백성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가 되는 장소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.
- 오늘날, 정복해야 할 현대적, 탈현대적 거인족들과 같은 문제들에 직면한 우리도 반드시 하늘 성소를 주목해야 합니다.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(지)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.